

복스

어린이 책꽂이

▲맹꽁이인물열전(3·4권) = '맹꽁이 서당'으로 유명한 만화가 윤승운씨가 우리나라 위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만화 3권 '리더십을 키워주는 역사인물'에는 성종대왕, 세종대왕, 최제우, 이승훈, 백범 김구, 안중근 의사 등이, 4권 '상상력을 키워주는 역사인물'에는 허난설헌, 허균, 연암 박지원, 이생원 등 위인 40여명의 에피소드가 수록돼 있다. <웅진주니어·각권 8천500원>

▲아하! 그랜 이런 역사가 있었군요 = 구석기 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5천년에 걸친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사 사건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된 그래픽, 또한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꽃피게 우리나라를 지켜온 조상들의 삶과 문화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주니어 김명사·9천500원>

▲열려라 중국신화 = '정재서 교수(이화여대 중문과)의 이야기 동양신화'를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쉽게 풀어쓴 책이다. 중국신화에서 꼭 알아야 할 여신을 중심으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등 중국의 고대국가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담았다. <황금북영·1만2천원>

▲사람들이 = 동물들의 눈에 비친 사람은 세상을 풍자한 동화책으로 통쾌한 유머속에 담긴 메시지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한다. 과장된 동물 캐릭터의 역동적인 표정과 동작, 대담한 붓터치와 강렬한 색감이 인상적이다. <시공주니어·8천500원>

▲말풍선 거울 = 손거울로 사람의 마음을 보고 싶어하는 주인공 한결이의 유쾌하고 재미있는 발상을 소재로 한 동화책. 한결이의 바아들은 이상한 세계에서 나오는 말풍선으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지만 결국 이 거울로 인해 서로에게 한발짝 다가가게 된다. <시계절·7천500원>

귀환 명령 받은 남파 간첩의 하루

빛의 제국 김영하 지음

조현실주의 벨기에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연작 '빛의 제국'(1954)은 부드러운 구름이 드리워진 대낮의 푸른 하늘과 가로등 또는 창가에서 새는 빛으로 표현되는 어두운 밤이 공존한다. 화가는 상반된 것들을 한 공간에 배치시키면서 이들 사이의 기묘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소설가 김영하(38·사진)가 '검은 꽃'(문학동네 펴냄) 이후 3년 만에 낸 장편 소설 '빛의 제국'에는 남파 사회와 간첩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공존하고 있다. 21년차 남파 간첩이 갑작스런 귀환 명령을 받고 겪는 24시간이 다뤄진다. 소설 구도는 시간대 별로 사건의 흐름을 좇는 미국 TV드라마 '24'를 닮았다. 1963년생인 주인공 김성훈은 평양의국어대학에 다니다 김정일정치시대 학 공작원반(옛 695부대 130연락소)으로 차출돼 22살이던 1984년, '1967년생 김기영'으로 남한에서의 간첩 생활을 시작한다. 김기영은 대학에 입학해 학생

'검은 꽃' 이후 3년만에 내놓은 스파이소설 80년대부터 한국사회 변화와 인간 삶 그려

운동권으로 잡임, 남파되는 간첩들에게 '그들의 삶'을 만들어 주는 포스트 역할을 한다. 수 백명의 스파이가 그를 통해 남한에 흘러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10년 전 자신을 내려보낸 북한의 담당자가 실각하면서 평범한 영화 수입업자의 삶을 살게 된다.

2005년 어느날 아침, 약간의 두통이 느껴지던 차 안에서 '부에나비스타 소설 클럽'을 들으며 출근하는 길은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이라고 김기영은 생각했다. 사무실에 도착해 '4번 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청산하고 즉시 귀환하라. 이 명령은 반복되지 않는다." 시간은 다음 날 새벽 3시, 장소는 태안반도였다. 그에게 남은 것은 24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갑자기 김기영의 머리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누가,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알 수가 없다. 차라리 "오류이거나 누군가의



지곳은 장난"이길 바라지만 '명백한' 귀환 명령이자 예고 없이 닥치는 '진정한 재난'이었다. 명령을 무시하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나, 북으로 가지나 대학 시절 만난 아내와 중학생 딸의 존재가 떠오른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히레사케와 초밥, 하이네켄 맥주와 샘 페킨과 나뭇 벤더스 영화를 좋아하는" 자본주의 인간이었다. 386세대 가장이면 누구나 그러하듯 하루하루를 때우고 있던 김기영에게 귀환 명령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게 하는 일종의 '정신적 쇼크'다.

저자는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폴 발레리의 시구를 인용한다. 김기영은 남에서도 북에서도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방인'이 돼 있었다.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처럼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방인.

저자는 1980년부터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왔고, 인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김기영의 하루'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스무 살 어린 대학생과 난고를 벌이는 김기영의 아내 장마리와 남자친구의 생일날 진한 키스를 하는 중학생 딸 현미의 이야기는 전체적인 구도 속에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지만 소설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

<문학동네·9천8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보네거트의 '제5 도살장, 혹은 아이들의'

"이 작품은 아주 짧고 뒤죽박죽이고 귀에 거슬러요. 대량 학살에 대해 말할 만한 지능을 갖춘 존재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 다시는 어떤 것을 말하거나 어떤 것을 읽힐 수가 없지요. 대량 학살 뒤에는 모든 것이 조용하게 마련이고, 언제나 그렇지요. 새들만 빼고요. 그럼 새들은 뭐라고 할까요? 대량 학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뿐입니다. 책책?"

커트 보네거트는 미국 보병대의 전쟁포로로서 비무장 도시였던 드레스덴 대공습 현장에서 살아남았다. '유럽 역사상 최대의 대량 학살'로 일컬어지는 이 공습으로 인해 13만 5천 명이 죽었다.

보네거트가 당시의 일을 소설 '제5 도살장, 혹은 아이들의 십자군 전쟁 죽음과 추는 의무적인 춤(아이필드 펴냄)'으로 쓰는 데에는 이십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야만 했다. 밀정인 정신으로는 혹은 전통적인 기법으로는 당시의 끔찍함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소설에서는 시간으로부터 해방된 주인공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다.

"이 책은 비형접시를 보내오는 행성 트랄파마도어의 전보 문 형식으로 쓴 정신분열적 소설이다. 평화."

대량학살에 대한 경멸감



이 소설을 읽고 나면 간단하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생겨난다. '빛나는 예술작품', '기상천외하고 정말 재미있는 소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반전(反戰)소설의 하나' 등이 이 소설에 쏟아진 찬사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묵직한 울림이다. 단지 이 소설이 기상천외하고,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자아내는 뛰어난 작품이기 때문만은 아니

다. 무엇보다도 전쟁, 공습, 학살 같은 단어들에 60여 년 전에 끝난 과거형이 아닌 탓일 것이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대한 뉴스들이 매일 나오고 있다. 이런 류의 뉴스들이 나온 것이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겠다. 나라 이름만 바뀌거나, 반복될 뿐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도 팔레스타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테러리스트들만 죽는 것이 아니다. 군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다. "맛대로 죽이기에 적당한" 사람들이 있다. 누구인가? 든든한 연줄이 없는 사람들."

폭탄에는 눈이 없다.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민간인이고 어린이들이 많다. 이러한 사실은 끔찍하는 측에서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책을 읽다가 펜을 찾아 밑줄을 그었던 대목 하나. "나는 내 아들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대량 학살에 가담해서는 안 되고 적대 대량 학살당했다든 소식에 만족감이나 패감을 느껴서도 안 된다고 늘 가르친다. 또한 대량 학살 무기를 만드는 회사의 일은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런 무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멸감을 표하라고 늘 가르친다."

보네거트의 말을 따르자면 경멸감을 표해야 할 대상이 너무도 많다. 우울하다.

박현욱 <소설가>

과학의 신비 '우연'으로 벗기기

과학사의 유쾌한 반란 찬글 지음

페니실린의 발견으로 인류를 감염의 공포에서 해방시킨 알렉산더 Fleming은 일찍이 "과학의 80%는 우연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발견과 합리주의의 영역이라는 과학에서도 우연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연의 번덕과 실수의 발견사'라는 부제가 붙은 '과학사의 유쾌한 반란'은 이처럼 우연이 인류사에 큰 획을 그은 고고학, 인류학, 생물학, 의학, 화학, 물리학 등 7개분야의 35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과학사의 주요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자인 독일출신의 신비리히 찬글은 '우연'이라는 비과학적인 시선으로 경직된 과학주의의 신비를 벗겨내는 기발한 논리를 발휘한다. 특히 일반인들도 쉽게 과학에 접근할 수 있는 글쓰기 방식과 다양한 사진, 과학의 뒷이야기들은 재미를 더한다. <이침이슬·1만원> /박진희기자 jhpark@kwangju.co.kr

日 청소업체 '무사시노'의 성공 비결

사장이 희망이다 고야마 지음

최근 직원이 360여명인 일본의 한 중소 청소업체 '무사시노'가 유수의 대기업을 제치고 일본품질 경영상을 수상해 이변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이 회사의 사장이 고야마 노부후의 독특한 경영방식도 주목을 받고 있다.

고야마 사장이 쓴 '사장이 희망이다'에는 '무사시노'의 성공 비결이 사장 자신의 경험과 함께 녹아 있다. 저자는 '강한 중소기업'을 뜻하는 강소 기업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우수한 직원일수록 수많은 실패를 겪게 하라 ▲사장 스스로 전 세계의 최첨단 기술을 배워라 ▲고객 만족보다 직원 만족이 더 우선이다 ▲디지털로 비용을 줄여도 사람은 줄이지 말라 등은 저자 고야마의 경영 노하우다. 책 사이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장 235명의 인터뷰 내용도 실려 있어 이들의 어려움 등을 엿볼 수 있다. <비즈니스맵·1만2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정우부동산랜드
상업지역 130평 급매
니주 은근농공단지 1030평
장흥유치대전(전·담·임)
전월동APT입구 상가부지 380평
광주대입구 상가 233평 매도
니주 남평 사산(드림강원지)
주말농장 및 묘지용 410평
니주 은근동자연주택 임야 3840평
가든 및 전원주택부지 1200평
묘지용임야 6750평 매도

한국공인중개사
장성지역
공장부지, 불류창고
전문중개
원하시는 지역에 원하시는 평수대로 가능한 지면관계상 물건 올리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공장매도
장성군 삼계면 4차선집
대지 약 3000평
건물 1-철골조 2층 437평
건물 2-철골조 2층 248평
매매가 12억(절충가능)
장성군 향릉, 동화, 공장부지 매물 급구함.

등지공인중개사
등지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매매 및 분양임대전, 건물대리중개
장성읍 전월동주택 100평
장성읍 오산면 통동리 면사리
산7매도 북구 앞산동 G.S. 그린지
니주시 금천면 손곡리 광곡근로집

빛고을랜드공인중개사
비전있는 남구, 지금이 투자의 최적기입니다
남구 이장동 임야 2800평 급매
남구 이장동 700평 매매
남구 안과동 1층 주거지역 급매
남구 화정동 1층 주거지역 매매
남구 이장동 주택 30평 급매
남구 안과동 대지 급매
남구 안과동 주택 및 창고매매
이장동 주택 1동 급매

아름다운부동산
상가건물
투지 및 임대용지
모텔매매
병원부지
전원주택용지
모지
신축건물 임대

국민공인중개사
건물
평
주유소 전문중개
병원부지 전문중개

동림2지구공인중개사
동림2지구 입대
병·의원
학원,상가
최고상권
최적조건
3면도로코너
2층~5층
70평, 135평
속 입점확정
1층 광주은행

대지공인중개사
구합니다
사회복지시설부지 2만평
임대(가게용 시세대로)
판다!
주요부지 상업지역 임대
교부지 용역용 400평x330만원
이전만 해감 들건
신안동 제일오피스빌 22평형 대충, 000만원, 보증금2,000만원, 월50만원
금리로 공시지가 15%
매매가 8억 대지 140평
총면적 35m 대면적 주거지역
코너 대지 180평 매매가 평당 310만원
대지 280평 건물 300평 전건 22m
대지 200평 매매가 10억 5천만원
신안동 상업지역 대지 102평
조방산전동 64평 현오피스빌 2억 5천만원
월용 1억, 보증금2000만 150만(포함)
변동용 4차선 대로로집 900평
2층전용 60평, 평당 1300만원
삼각동 31사단 정문앞 4차선대로
대지 86평 매매가 평당 280만원
도원동 생신복지 포정도로집
907평 매평당 78만원
학동 대지 120평
여원전동 150평 포방 매평당 330만원